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

최선희((사) 씨즈 충남지부장)

[충남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문]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과제 및 제언

2011. 10. 28

최선희 ((사) 씨즈 충남지부장)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신생 조직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와 향후 새로운 조직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전제 조건이기 될 수 때문이다. 분야별 과제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충남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개별 조직 지원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의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 및 철학 공유 2. 조직 운영 기본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3. 분야별 심화 교육 및 조직 진단 4. 관련 분야별 / 지역별 그룹 네트워크 강화
전체 기반 조성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2. 청년층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 예술 분야 지원확대 3.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서비스) 정부 구매 확대 4.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지역 홍보 및 일반인 교육 강화 5.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관련 행정작업 간소화 6. 민주도적인 중간지원조직의 건설 7. 관계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확보의 필요.

1. 개별 조직 지원 과제

1)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 및 철학 공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존 영리 조직들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은 사업의 아이템이나 서비스 내용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위들의 구성원을 비롯, 특히 대표와 같은 핵심 리더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공유하고 체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충남도 내에서 초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많은 경우, 이러한 점에서 기본적인 합의는 가지고 출발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이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출현 경로와 가치를 지닌 조직과 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이 기존 자본 중심의 영리 기업들의 운영방식과 별다른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의 존재 필요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지속해서 그 내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가치와 철학에 대해 학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적 회의의 훈련, 조직 내 자율적인 규율 제정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훈련하도록 사회적 경제 대표 및 구성원들이 반드시 관련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조직 운영 기본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

각각 다른 경력과 출현 경로를 지닌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철학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경제 활동 주체로서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회계, 세무, 노무, 인사관리 등 경제 단위로서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법에 대해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자체 노력만으로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전문성 부족,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경제 활동과 관련한 기본 운영 체계에 대한 내용을

매뉴얼화 해서 교육, 보급해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한 그룹들의 경우, 조직 경영 능력과 관련해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초기 신생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분야별 심화 후속 교육 및 조직진단

앞서 언급한 두 분야에 대한 입문 과정과 초기 구축단계에 대한 지원에 이어 어느 정도 사업성과나 연혁이 축적된 경우, 계속해서 이를 발전 심화해 나갈 수 있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영역별 전문성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심화교육 과정의 공급과 조직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설계할 수 있는 조직 진단 과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인증 연차가 지나면서 이러한 대상 기업들이 충남도 내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설정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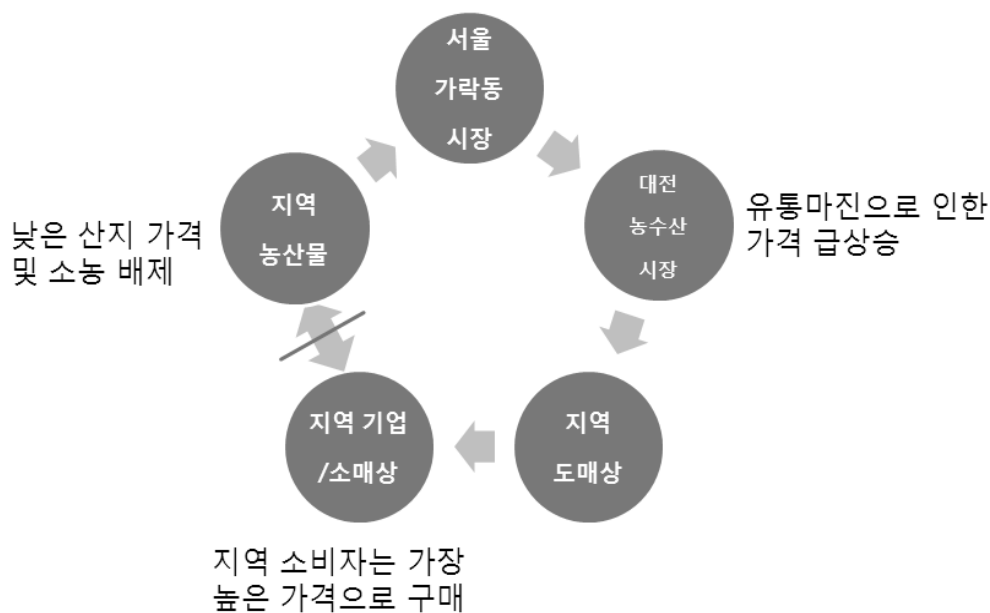
4) 관련 분야별 / 지역별 네트워크 강화

앞서의 과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야별, 지역별 네트워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일방적인 교육 방식보다는 자기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평가, 공동의 과제 설정 및 수행 방식이 사회적 경제 조직간 연대와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마케팅, 기술개발, 레시피 공유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공유하고 선진 사례를 학습하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상호간 경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 내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후발 참여 주자들에 대해서도 전망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 역할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시군별 사회적 경제 모임과 충남도 내 분야별 분과 모임 조직 등을 기본 단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전체 기반 조성 과제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역 농산물의 경우, 가락동 시장을 거쳐 대전 농수산물시장이나 지역 도매상을 통해 다시 지역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과정에 따른 상당한 유통마진으로 오히려 현지 단가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다. ‘온양온천시장’은 전철 연결로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고객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지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기대하고 방문했다가 이렇게 유통을 거치면서 오히려 수도권보다 높은 현지 가격에 실망하고 지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 유통과정의 문제점

지역 소비자로서 지역 농산물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구매하고자 하여도 현재 유통구조는 이렇게 서울 중심으로 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산, 소비,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로 지역 내 생산품의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도 전체 차원의 진단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지역 농산물 유통구조는 높은 유통마진에 따른 소비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소농 고령농에 대해서는 대량 유통 과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로 지역의 많은 생산자들이 소규모로 생산되는 작물에 있어서는 마땅히 환급할 수 있는 통로를 갖지 못해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학교 급식지원센터 등의 준비 작업과 관련해 최소한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이라도 지역의 수요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획생산을 통해 직거래를 강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지역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거점으로는 충남도 내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또한 소농 고령농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지역이나 관광지와 연계한 농부 마켓의 활성화, 대전, 천안 등 충남권 도시 생협과 연대한 로컬푸드 할당제 등 다양한 시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 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한 예술 공원의 경우, 수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하는 방법으로 관람객들에게 소액의 농산물 교환권을 나눠주고 지역 소농들이 직접 판매하는 작은 규모의 농부마켓을 공원 내 열어 농산물과 교환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히 인기있는 관광 코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가 지역 중심으로 재편될 때,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층 일자리 창출 위한 문화 예술 관련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확대

청년층 실업문제와 관련,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예술 관련 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타 업종의 경우, 고령자 취업 지원에 비중이 있다면 문화 예술 분야의 경우, 고령자보다는 청년층의 인력과 전망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하반기 충남형 사회적 기업 중에도 청년층을 고용한 한옥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업단을 비롯, 총 5개의 문화 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이 선정되었다. 충남도 내 산재해 있는 과거의 전통 문화 지역 자원을 현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 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문화 예술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은 굉장히 척박한 상황이다. 특히 전통문화 예술의 경우 한정된 시장으로 불규칙한 공연 수입만으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고 체계적인 내용 축적과 인력 양성이 힘들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설 공연장, 연습실 제공, 학교 연계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사업적 측면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실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3) 사회적 경제 조직 생산품(서비스) 정부 구매 확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구매 해 줄 것에 대해서는 그간 계속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원 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지자체 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인식 및 홍보 부족, 생산품의 품목이 다양하지 못한 것 등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단위에서도 관련 부서 외 전 부서 차원에서 제도 및 절차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지자체 우수 사례 홍보 등 보다 구체적인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 조직 내에서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수요를 조사, 이에 대한 생산 계획을 세워 지자체와 협조함으로써 공공영역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품이 지역내에서 적절하게 소비되도록 하는 데는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담당할 전담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100여개를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므로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로 전달되도록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4) 사회적 경제(기업)의 적극적 지역 홍보 및 일반인 교육

아직까지도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명칭은 알아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 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구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등 다양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인식 뿐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에서도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활용 방안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지역 홍보와 일반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천안지역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계속해서 출현하는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5) 사회적 기업 지원방식의 다양화 및 관련 행정작업 간소화

현재와 같은 인건비 지원이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많은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취약 계층 지원 방식의 하나로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기업의 활용도나 주체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같은 규모의 비용 투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기업 지원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령자 중심 기업의 경우 지금의 인건비 지원 방식은 고령자 특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좀 더 유연한 고용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도 지원방식과 관련한 많은 논의와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으므로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방식의 다변화와 사회적 기업들에서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각종 행정 서류 작업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도시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 정책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게 재구성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몸을 옷에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탈법과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정작업의 간소화도 현장에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하는 곳에서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중복, 반복, 복잡하지 않고 변화된 내용만을 간단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편의는 사회적기업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5) 민주도의 중간지원조직건설의 중요성

현재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지닌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두고 사회적경제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간 펼쳐온 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교육, 사회적경제연구회 운

영 및 진행,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생태계현황 및 조성을 위한 조사사업, 홍보책자발간 등을 통한 홍보활동 등을 진행시켜왔다. 이러한 활동들을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지원을 통한 관주도의 활동으로 진행시켜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민주도로 진행되면서 그 시너지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남도 곳곳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적구성들을 발굴하고 독려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많은 활동을 아웃소싱형태로 진행시키면서 지속성의 단절의 문제와 충남도내의 전문가 육성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들은 중복되는 교육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시로 상담과 교육이루어지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민주도의 지원조직들이 활성화되어 그 열정이 바탕이 될때 사회적 경제로서의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본다.

6) 관계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모든 정책들이 그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 군, 읍, 면의 담당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전반의 교육, 정책 지침의 이해, 선진지 견학 등 해당부서만이 아닌 해당 부서를 비롯하여 시군구 전체 공무원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부서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